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계란 품질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유통구조 개선 미봉책으로 끝낼일 아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일간신문을 통해 계란에 대한 품질과 위생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유통의 혼란과 난가 하락으로 채란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67%가 품질불량'이라는 내용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가 된 것이다.

소시모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수거한 계란 92개 품목, 2천 7백여개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이중 67.4%인 62개 품목은 품질 3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신선도에 있어서도 20%가 소비자 거부점인 60%미만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본회는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으로부터 각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즉시 각 언론사에 감사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비해 보도를 지제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품질을 평가해준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에 추석대목을 앞두고 양계농가 죽이기에 앞장선 저의를 밝히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항의를 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단순히 계란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만을 소시모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사전에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일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본회에 전달했지만 이미 계란 판매장에서는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를 반영하듯이 추석이후 난가가 하락하는 등 유통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났다.

문제는 계란품질을 측정할 시점이 막바지 찜통더위가 극성을 부리던 8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주부들이 추석맛이 장을 보는 추석 직전이었고, 생산자 단체인 본회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데 등급판정소의 등급란 확대를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농가에서 판매되는 계란이 오물란 등 품질이 낮은 계란이 전혀 유통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나 대부분의 농가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신선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통상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들로 인해 고스란히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본회 입장이다.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채란계 능력검정에서 보면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제 36회 검정성적에서 노계령인 72주에 생산된 계란의 난각두께는 0.378mm(평균 0.386mm)이고 품질의 척도를 알 수 있는 하우유리트도 74.1(평균 83.7, 70이상은 우수)로 나타나 농장에서 판매되는 계란 상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번 발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일부 유통을 제외하고는 콜드체인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의 경우 유통기간이 길어질 경우 품질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다. 일본에서 표시하고 있는 계란보관 기간을 볼 때 10°C에서는 최대(냉장고보관기간까지) 57일을 보관해서 먹을 수 있으나, 36°C에서는 8일이 최대 보존기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유통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발표가 서로간의 책임회피, 성명서, 호소문 등 일시적인 미봉책(彌縫策)으로 끝나지 말고 계란유통시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협 커진다 철새이동철 다가오면서 긴장 고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가 철새라는 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철새이동철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해 보다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었던 네덜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이동하는 철새와의 접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사종인 가금류를 전부 사육장 안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3개 주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해 방목을 금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준비하는가 하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에 대한 근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를 머물다 가는 철새들을 보면 뒷부리도요 등 15개 종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러시아에서 날아드는 철새는 뒷부리도요, 큰기러기, 재두루미 등이며 동남아에서 이동하는 철새는 두루미, 저어새, 뒷부리도요로 나타났다. 철책선 근방에 날아드는 독수리는 몽고에서 날아오며, 일본을 오기는 것은 흑두루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도 연구계와 연계하여 철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부에 노출된 방사닭에 대해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 박차

대의원 선거 24일-28일까지 5일간 실시

육계의무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공동자조활동자금준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자조금 거출문제 등 계열업체와 육계인들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으나 지난 8월 23일 공동준비위원회를 통해 대의원 선거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면서 육계자조활동자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 선거가 이달 24일부터 28일 5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선거일자(지역)를 보면 24일(전북, 충북), 25일(충남, 강원), 26일(경기, 경북), 27일(전남, 경남), 28일(제주)로 일정이 잡혀있으며, 이번에 지역 축협의 72개 선거구에서 150명의 대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대의원 주요 선거일정을 보면 이미 지난 8월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지역별 사육수수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22일자로 선거공고를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 후보자 등록(미달시 10월 7일까지)을 받아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14일 선거 공보를 발송한 후 24일부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최종 당선자는 31일 발표된다.

대의원은 육계를 사육하면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해당 선출구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는 누구든 후보에 출마할 수 있다. 이번에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조사·집계된 농가(500수 이상) 및 사육수수를 보면 4,204농가에서 143,487,300수로 나타났으며, 도별 대의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4명이며, 충남(33), 전북(26), 전남(22)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중 가장 많이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시는 정읍시로 5,174,000수, 군은 당진군으로 4,446,200수로 나타났다.

투표방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지역적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앞으로 육계자조활동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등 자조활동자금사업의 큰 골격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선 투표를 통해 거출납부 및 실제 거출방식 등을 결정한 후 자조활동자금 사업계획 수립·제출 및 사업계획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종 대의원의 승인을 얻어 거출금 조성 및 소비·홍보 등을 집행하게 된다.

전국단위로 양계업계에서 사상 처음 실시되는 이번 투표는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만큼 육계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자조금거출, 거출비율, 사업계획 수립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 많이 있지만 대의원 선출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경우 2006년부터 기금거출 및 집행을 통해 육계산물 홍보, 소비자 교육, 육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